현대불교

제 769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2월 3일(음력 12월 20일) 수요일(주간)

자승 스님 방북

민화협 초청, 용화사 복원 · 의료기관 설립 등 논의

북방한계선(NLL) 포격전으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월 30일 평양을 전격 방문했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북에서 자승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은 민화협 및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들과 만나 남북불교교류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 사회부장 혜경 스님, 해인사 주지 선각 스님 등이 포함된 조계종 대표단은 평양 용화사, 법운암, 보현사 등을 둘러보고 북한 불교 활성화 등을 모색했다.

남북대치 상황에서의 방북 행사는 '긴장관계에 놓여있는 남북문제를 민간교류로부터 풀어야 한다'는 자승 스님의 의지에 따라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조계종 대표단은 이번 방북에서 조불련 등과 △금강산 신계사 활성화 △평양 용화사 복원 및 불교문화재 공동 복원 △평양 내 인도적 지원시설 건립 △남북 주요 사찰 간 교류협약 체결 △2011년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 북대표단 내방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했다.

대표단의 방북에 앞서 조계종은 2007년 복원불사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 등으로 잊혀져가는 금강산 신계사에 조계종 스님을 상주인원으로 파견해 통일불사의 상징도량으로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평양 모란봉에 위치한 용화사를 남북불교교류의 또다른 거점으로 육성해 북한지역 도심포교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평양 용화사 증축불사와 함께 평양 불교문화회관을 포함한 단일진료과목의 의료기관 설립과 의료물품지원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조계종은 남북불교교류 사업에 앞서 주요사찰 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역사적 · 지리적연관성을 고려한 상호방문, 공동법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9월 해인사에서 개최되는 '대장경 1000년 세계문화축전'에는 북측 보현사에 소장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인경본(북측 국보)이 전시되며, 서울과 평양 등지에서 고려대장경 관련 국제학술대회와 세계평화기원 대법회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방북과 관련해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29일 "종교교류를 넘어 경색돼 있는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틀 것"이라며 "북측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29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는 등 조계종은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와도 의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아이티 의료봉사단 발대

아이티 지진 피해 현장에 한국불교의 자비 손길이 전해진다. 조계종은 1월 29일 오후 1시 30분 경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아이티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봉사단은 묘장 스님(사회국장)을 단장으로 동국대의료원 의사 4명과 간호사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2월 1일 출국해 2월 3~11일 현지에서 진료봉사를 진행한다. 이번 의료지원 예산은 1억여 원이며 예산 지원은 아름다운동행이 분담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의 아이티돕기 기금 모금에는 해인사 수덕사 통도사 등 70여 사찰 및 단체와 220여 사부대중의 자비의 손길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2억6000여 만원(28일 기준)이 모였다. 아름다운동행 농협 301-0029-6115-71

글=박선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조계사에 압력… "국정원장 참회하라"

경불련 등 교계단체 "기부행사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

국가정보원이 조계사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에 장소 제공을 철회할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면서 협박성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진실을 알리는 시민(진알시)'이 주최하는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는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매일 불교인의 날, 시민의 날, 언론인의 날 등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불교인의 날에 공동주최로 참석해 수익금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며, 조계사는 이런 취지에서 12월 종무회의를 통해 경내 행사진행을 수락한 상태였다. 하지만 조계사는 1월 28일 국정원 직원 권모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장소 제공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조계사 관계자는 29일 "1월 28일 오전 국정원 직원이 전화로 '반MB 규탄 집회를 연다'며 종단 방북일정을 언급했다"며 "오후 2시경 그 직원이 직접 조계사를 찾아와 조계사 고위층 스님을 만났다"고 밝혔다.

조계사 관계자는 "'국정원'이라는 이름은 아직까지 크게 다가온다"며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계사의 입장을 전했다.

이 외에 KBS에서도 조계사 측에 "수신료 거부 퍼포먼스에 불교계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사를 기획한 진알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KBS시청료거부 퍼포먼스 때문인 것 같다.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행사가 국정원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등 10개 교계단체는 29일 "자발적이고 순수한 기부행사를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고 압력을 행사한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강력히 경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 엄중문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국정원장 참회 등을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5 현장-영문 자타카 말하기 대회 ▶14 선지식-일면 스님 ▶8 인터뷰-김원보 대표

음주경찰 지관 스님 폭행

불교환경연대 등 연대행동… 조계종 성명

술 취한 경찰관이 지관 스님을 폭행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4대강 운하 개발 사업 저지 특별대책위' 불교위원장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전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이 폭행을 당한 것은 1월 19일 12시 30분 경으로 사찰 밖에 소란해 나간 지관 스님은 안면을 가격당해 안경이 부서지고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의왕서 교통조사과 소속 김모 경사와 경기도 경찰청 전투경찰대 이모 경사. 스님은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일곱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34개 교계 단체들은 26일 긴급회의를 열고 29일 불교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해 △경찰 최고책임자 사과 △당사자 엄중문책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연대행동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도 26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경기경찰청에 국장단을 파견해 공직기강 해이 등을 지적했다. 윤재옥 경기경찰청장이 불교계의 거센 항의에 사과방문를 약속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9일 "조속히 마무리 됐으면 한다, 확대해석은 우려스럽다"고 밝히는 등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폭행당사자들과 해당경찰서 서장 등은 사태가 확산일로에 이르자 뒤늦은 25일 김포 용화사를 찾아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사 령

명
정성운 편집국 부국장

의원면직
임연태 편집국 부국장
김재경 편집국 취재부 부장

진흥원특위 토론 열려

자승 스님 연기 표명에도 강행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가 진흥원 측의 불참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토론회 무기한연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강행했다.

진흥원특위는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단과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진흥원특위 위원장 의연 스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준영 前 방송위원과 허남오 10 · 27법난 명예회복 심의위원,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김영일 총무원 기획차장의 토론으로 진흥원 측 의견을 대변할 인사 없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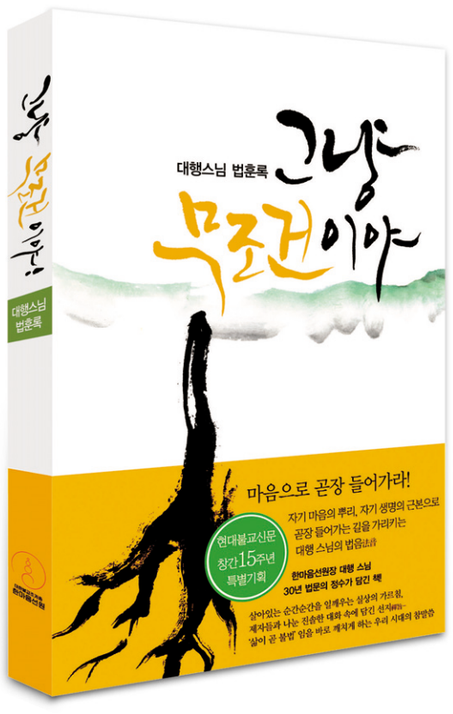
'화합'과 '소통'을 강조한 총무원장스님은 25일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의 예방에서 "토론을 무기한 연기해서라도 종단과 불교방송, 진흥원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무원장스님의 이 같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토론회를 두고서는 종단실세인 모스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과 함께, 제33대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삐걱대는 자승 스님의 리더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이에 앞선 26일 진흥원은 이례적으로 '2010년 주요 사업방향 및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진흥원은 "'세상을 위한 불교, E-GREEN BUDDHA의 세계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재단설립 취지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 박선주 기자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www.hyunbulshop.com